

물폭탄에 농산물 가격 급등...생활물가 다시 오른다

장마·폭염·태풍 체감물가 악재 연속...2%대 물가지수와 괴리 커질 듯 국제 곡물·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 여전...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높아

잇따른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던 생활물가가 다시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수산물에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수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상황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6월 2.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1개월 만

에 2%대 증가율로 둔화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와 밥상물가를 대표하는 '체감물가'의 괴리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물가 기초 자체는 둔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전반적인 시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추이가 주목된다.

가령, 채소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그치지만 생활물가지수에서는 2.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물가 당국에서 주목하는 지표다. 6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3%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 상승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채소·과실·생선·해산물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지난 2월 3.6%에서 3월 7.3%로 치솟았다가 4월 3.1%, 5월 3.5%, 6월 3.7% 등으로 3%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극한 호우'의 파급은 일정 시차를 두고 8~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장마에 이어 8월 폭염, 9월 태풍 시즌까지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소라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과거 시계열을 보면 폭염이나 한파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가 있었지만,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이 요인만으로 물가상승률을 기초적으로 3%대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 외에도 '애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상승) 등 체감물가를

끌어올릴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을 종료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를 포격하면서 밀 등의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인스(NYT)는 밀 가격이 러시아가 협정 종단을 선언한 지난 17일보다 10% 넘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유가도 경기 연속착륙 등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7.07달러로 마감했다. 4주간 11.44% 올랐다.
소비자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왔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체감 물가 상승 요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 장수사진 무료촬영

110명 어르신에 액자 제작 전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24일 광산구 삼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촬영'을 실시했다. (사진)
삼도농협 관내 110명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수사진을 촬영은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후원을 통해 농업인의 문화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수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한 고성신 본부장과 오종선 삼도농협 조합장, 한제규 노조위원장,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10명은 화장과 머리손질, 의상 준비 등으로 농촌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했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로 제작돼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레트로 감성 '복각시계' 여름 패션에 딱
롯데백화점 광주점 티소 매장 직원이 복각 시계인 '티소 시계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티소는 블랙 카본 케이스와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노랑, 빨강, 파랑 등 화려한 색감의 스트랩을 더한 '티소 시계달'을 주문예약을 통해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8.53 (+18.77)
↓ 코스닥	929.90 (-4.68)
↑ 금리(국고채 3년)	3.617 (+0.015)
↓ 환율(USD)	1279.90 (-3.50)

광주은행, 고객 감사 더드림 특별 이벤트

'행운박스예금' 가입자 금리우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행운박스예금'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객 감사 더드림 특별 이벤트'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운박스예금'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 방문, 모바일 앱뱅킹을 통해 최저 1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별 이벤트 우대금리를 더해 6개월제 최고 연 3.7%, 1년제 최고 연 3.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우대금리는 개인당 최고 연 0.5%포인트까지 제공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리 조건은 ▲가

중기부·중진공, 정책자금 4000억원 확대

총 5조4000억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4000억원 추가해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5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정책자금 4000억원 중 1500억원 은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
또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